

# “지방도 국도 승격, 균형발전 고려해야”

### 국토부 20년만에 승격 작업 추진 고흥~완도·장흥~특량도~고흥 등 전남도, 4개 구간 반영 지속 건의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서 20년만에 추진하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과 관련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기점 변경', '장흥~특량도~고흥 국도 77호선 변경 지정' 등 4개 구간의 반영을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마무리한 조만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아직 어느 구간이 국도로 승격될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국토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고흥~봉래 등 17건 4조5522억원 규모의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0년 5월 '고흥~완

도', '장흥~특량도~고흥', '고흥 봉래 국도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4건을 비롯한 전국 21건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그동안 국토부 선정 4건 모두 국도 승격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 국도 승격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개발' 항목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기존의 '선 수요 파악 후 공급'에서 '선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국도 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부가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을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협의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전남도는 국도 승격과는 별도로 지방도 건설에

도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고흥~완도 간 등 4개 도로의 국도 승격을 위해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다니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에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도 승격은 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도로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도의 국도 승격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254km를 77호선으로 지정할 후 20년 만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지난 7일 열린 전남 주요 농식품 판로지원 품평회에서 유통MD와 농업법인 관계자가 상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 전남농기원, 유통업체 MD 초청 농식품 품평회

### 50여 품목 유통사 신규 입점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국내 주요 유통업체 상품 기획자(MD)들을 초청해 전남 농특산물, 가공식품 품평회를 열고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섰다.

10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농기원은 지난 7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와 공동으로 '2021 전남 주요 농식품 판로지원 품평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기원에서 열린 품평회에

는 농업인·농업법인 40여 개소, 국내 주요 유통사 구매 MD 30여 명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 농특산물·차류·장류 등 100여 종의 상품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전남 농가 및 농업법인 17개소는 GS리테일, 와이마트, SSG닷컴 등 11개 유통사에 한과 건나물, 샤인머스켓(과일) 등 50여 품목의 신규 입점을 확정짓는 성과를 올렸다. 신규 입점을 확정된 업체는 유통처와 가격, 납품 기일 등 협의를 거쳐 대형유통망에 입점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대상 확대 호응

###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까지 공급

전남도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해부터 비대면으로 추진한 초등학생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공급을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사업을 확대해 상반기 수요조사를 한 결과 1억 5000만원 상당의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한 총 판매액 3억5000만원의 43% 규모다.

이용자는 국산 농림축산물을 사용해 새싹인삼 화분, 천연염색 손수건, 백향과정 등 만들기 체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담은 꾸러미를 활용해 스스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다. 연계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교육청의 체험활동비를 이용했으나, 올해부터 요양원,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집,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비롯 담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수계기금과 각종 사회단체 행사비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꾸러미 공급 대상을 노인 등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면서 상품도 기존 22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콩나물 키우기, 천연염색 마스크 만들기 등을 추가로 개발해 50여 개로 늘렸다.

구매를 바라는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 교육기관은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inmall.kr)에서 체험프로그램 행사 5일 전까지 주문하면 일정에 맞춰 받아볼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 농수산물식품 말레이시아 수출 확대

전남도는 2021년 청년 수출기업으로 선정된 (주)창대이프엔비가 최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전남도 상설판매장에서 판촉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수출 선진식을 가졌다. 이날 말레이시아 수출길에 오른 품목은 낙지젓, 오징어젓, 다시마, 미역, 김, 완도 전복류 등 3만 달러 상당의 전남 우수 농수산물이다.

6월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철

된 면세점의 전남도 상설판매장에서 판촉행사로 판매될 예정이다. 현지 방송 광고 등을 통해 현지 홍보도 이뤄진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 증대를 위해 미국, 중국, 신남방지역 등에 전남도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선진식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이 증가해 수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온라인 교통안전서약 운동 전남도, 전국 최초 시행

전남도가 5월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서약 운동을 시작한다.

'교통안전서약운동'은 교통안전을 위해 실천할 10개 항목 중 스스로 5개 이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온라인 교통문화 화합 캠페인이다.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바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주요 서약 항목은 안전속도 5030정책 전면 시행에 맞춰 도시지역 제한속도 30~50km 이하로 운행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하기, 급정차·급출발·불법주정차하지 않기 등이다.

전남도는 200만 도민의 5%인 10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교통안전서약운동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한다.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전남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남도 안전학당, 청소년 안전문화교육 등 대면 홍보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전남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전남도 교통연수원과도 방문자에게 교통안전서약 운동을 홍보한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다도해국립공원 지정 철회하라” 여수 금오도 주민들 환경부 앞 시위

### “재산권 마찰·갈등 40년 되풀이”

관광지로 유명한 금오도 주민들이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부 앞에서 다도해국립공원에 강제 편입된 구역 가운데 농경지와 산림에 대해서는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다. <사진>

지난 198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금오도가 편입되면서 주택 신축이나 농지 개간 등이 불가능해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최근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으나 이를 위한 편의시설조차 조성하지 못하면서 소득 향상, 삶의 질 개선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날 시위에 나선 주민 48명이 낸 성명서에 따르면 금오도가 속한 여수 남면은 지난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나 사전동의도 없이 진행되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 국립공원에 편

입, 이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이 40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의 단속과 고발이 계속되고, 주민들은 이에 대응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민들을 위해 농경지(전답)와 산림 전체를 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환경부 장관을 직접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장관의 금오도 방문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성미 시의원 등 여수시 전 의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남면 일부 지역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했고,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